2026.10.3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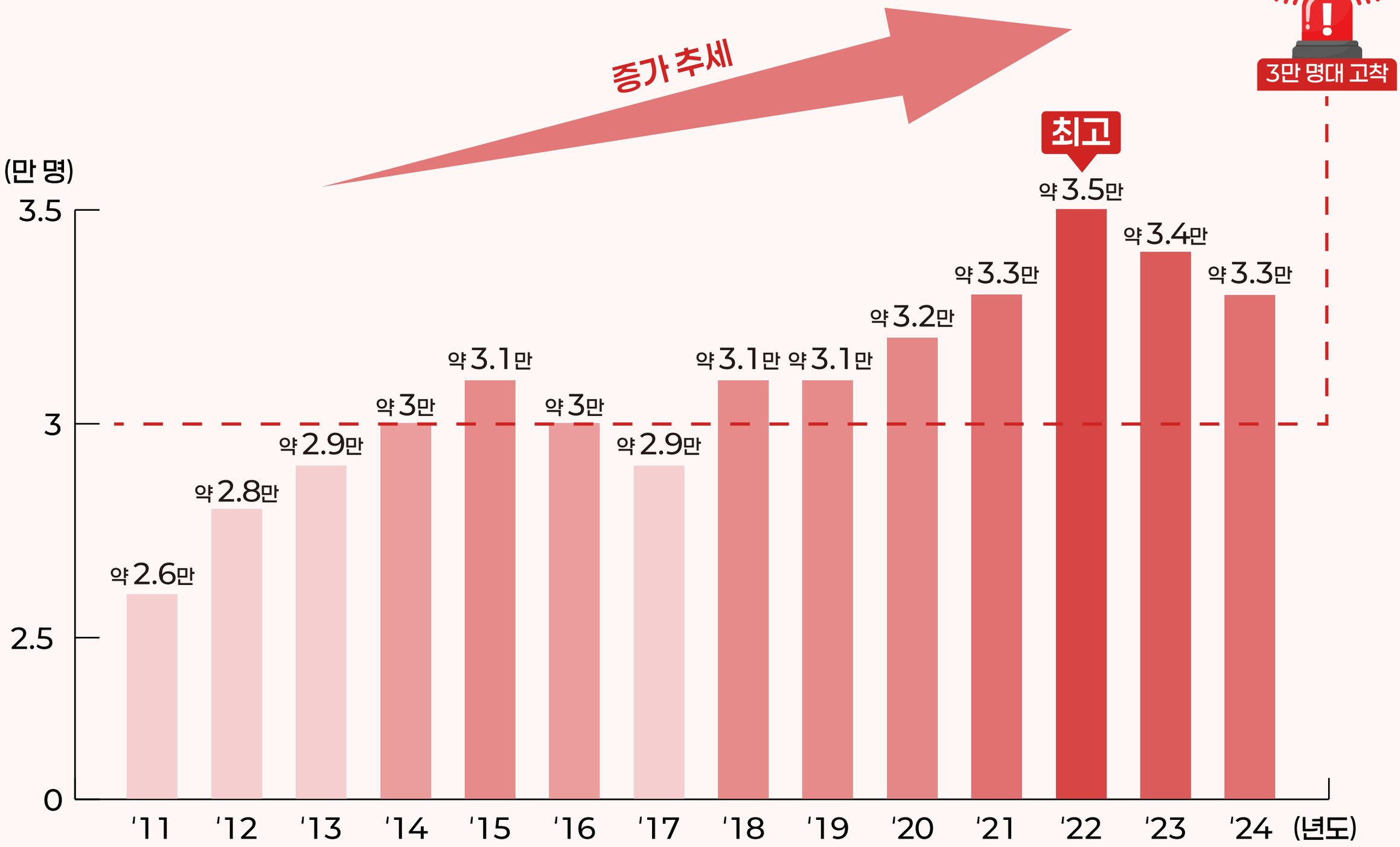
질병관리청

급성심장정지, 살릴 수 있습니다!
당신의 움직임이 한 생명을 이어갑니다.

갑자기 찾아오는 급성심장정지,* 매년 3만 명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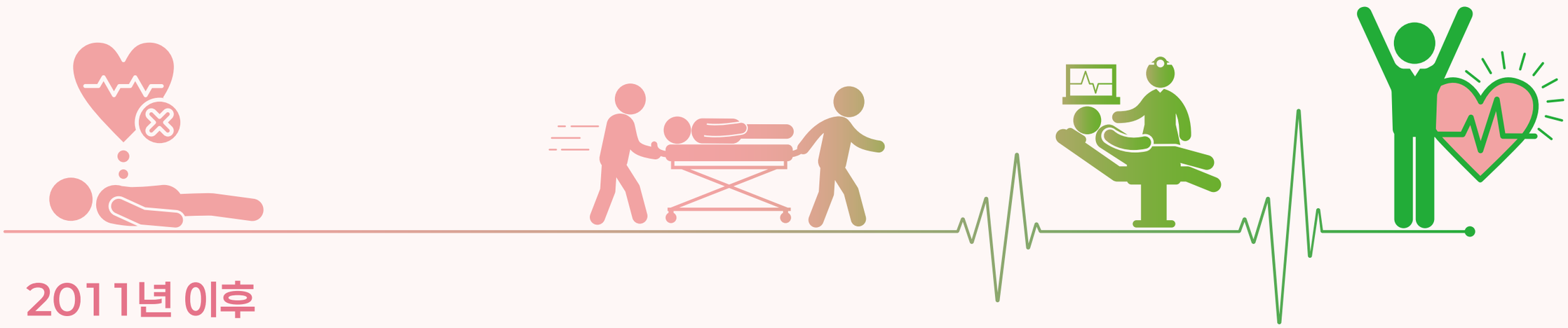
*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로, 대부분 즉각적인 의식소실이나 허탈상태 등이 유발됨

연도별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



출처: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(질병관리청)

빠른 소생 시도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장기생존과 삶의 질을 함께 결정합니다.



2011년 이후
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환자
372,831명(연계 완료 기준) 중 30일 생존자는 25,355명

급성심장정지 발생 후 5년 이상 장기생존자*는

6,053 명

* 2023년 1월 1일 기준 급성심장정지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생존한 환자를 의미

자료원: 급성심장정지조사(질병관리청) - 건강보험 청구자료(국민건강보험공단) 연계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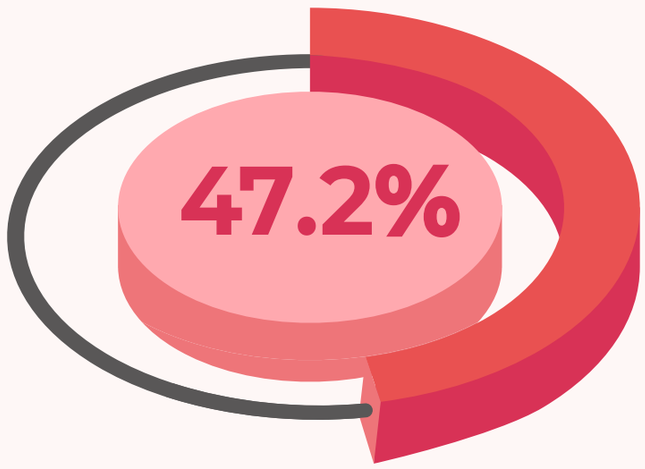
빠른 119 신고와 심폐소생술,
응급의료체계의 발전으로
생존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

목격자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
미시행 환자 대비 약 2~3배 높습니다.
가까운 소방서·보건소 등에서
심폐소생술 무료 교육을 받아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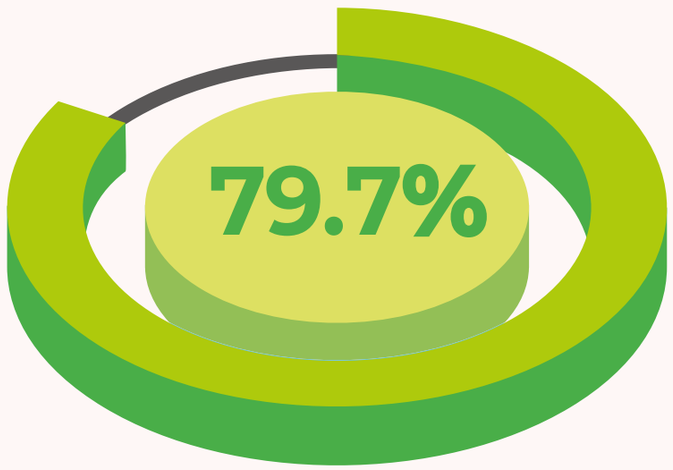
생존자의 절반은 60세 미만,
건강한 사회 복귀가 중요합니다.

심장정지 생존자라면 담당 의사와 함께
심장재활 프로그램·직장복귀 계획을 세우세요.
심장재활은 재발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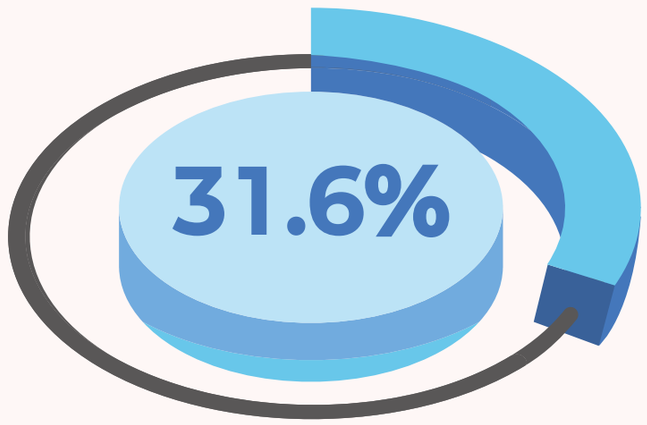
급성심장정지 장기생존자 중 60세 미만



급성심장정지 장기생존자 중 남성



급성심장정지 장기생존자 중 직장보험 가입자



자료원: 급성심장정지조사(질병관리청) - 건강보험 청구자료(국민건강보험공단) 연계 자료

지속적인 재활은 후유증과 장애 극복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.

심장정지 생존자와 가족에게 알려주세요.

- 퇴원 후 심장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세요.
- 신체·인지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는 삶의 질을 높입니다.

소생은 시작일 뿐, 진정한 회복은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서 시작됩니다.

생존자와 가족이 알아야 할 3가지

① **포괄적 심장재활** - 심폐 기능·체력 회복 프로그램 참여

② **정기 외래 진료** - 동반 질환(심부전·당뇨·우울증 등) 정기 모니터링

③ **심리·사회적 지원** - 전문 상담을 통한 우울·불안 증상 조기 관리

심장정지에서 완전한 회복까지
5개의 생존사슬을 기억해 주세요.

① 심장정지 인지·구조요청

② 목격자 심폐소생술

③ 제세동(심장충격)

④ 전문소생술·소생 후 치료

⑤ 재활·회복

출처: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(질병관리청·대한심폐소생협회)